

##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에는 동그라미표를 치고 맞는 것에는 가새표를 치시오.
- ② 이 공원은 위험한 놀이 기구가 많아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알맞는 곳이 아니다.
- ③ 겁에 질린 철수는 선생님께 “아니오.”라고 얼떨결에 대답해 버렸다.
- ④ 저기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김철수 씨의 동생이예요.

문 2.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북악 Bukak
- ② 알약 allyak
- ③ 별내 Byeollae
- ④ 팔당 Paldang

문 3.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과인산(過隣酸), 사육신(死六臣)
- ② 미립자(微粒子), 총류탄(銃榴彈)
- ③ 파염치(破廉恥), 강수량(降水量)
- ④ 가정란(家庭欄), 실락원(失樂園)

문 4.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② 그가 구입한 물건이 얼마 어치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 ③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 ④ 그는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문 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 ② 육계장이 너무 매워 아직까지 입 안이 얼얼하다.
- ③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파래져서 달려갔다.
- ④ 쓰러져도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야지.

문 6. 다음의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① 외래어도 국어이므로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문자나 기호를 쓸 필요가 없다.
- ② ‘graph’는 ‘그래프’로 적는다.
- ③ 받침 표기는 국어의 음절 말 자음 체계와 일치한다.
- ④ ‘Paris’는 ‘파리’로 적는다.

문 7.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해방 직후 문단에는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문단의 정비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문학인들이 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체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문학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이루어진 민족정신의 위축을 벗어나 민족 문학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에 근거하여 민족 주체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된 민족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건설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당시 문단에 널리 일반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① 해방 직후 문단의 과제는 식민지 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었다.
- ② 식민지 문학의 청산은 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체험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 ③ 새로운 민족 문학 건설은 민중 문학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진로 모색에 관심을 집중했다.
- ④ 민족 문화의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문단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문 8. 다음 글에 드러나는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발하면 말이 되고, 말에 節奏가 있으면 歌와 詩와 文章과 賦가 된다. 四方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각각 그 말에 따라 節奏를 붙이면 다 족히 天地를 움직이고 鬼神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홀로 中國에만 限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詩文은 그 말을 버리고 他國의 말을 배워서 쓰니, 가령 十分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일 뿐이다. 閩巷의 樵童汲婦가 웅얼거리며 서로 和答하는 것이 비록 鄙俚하다고 하더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이는 진실로 學士大夫들의 이른바 詩賦 따위와는 함께 논할 바가 아니다.

- ① 秋風唯苦吟 / 世路少知音 / 窓外三更雨 / 燈前萬里心
- ② 冬至入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東京明明月良 / 夜入伊遊行如可 / 入良沙寢矣見昆 / 脚烏伊四是良羅 / 二盼隱吾下於叱古 / 二盼隱誰支下焉古 / 本矣吾下是如馬於隱 / 奪叱良乙何如爲理古
- ④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 말이 한참같이 // 팽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강냉이가 익결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 // 왜 사나건 / 웃지요.

문 9.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섹스, 폭력, 코미디, 엽기 등 말초적 자극에 열중해 온 한국영화. 음악성은 없고 꼭두각시 춤만 있는 대중 음악. 대중을 문화의 향유자가 아니라, 팝콘 소비자쯤으로 앞잡아 보는 것들이다. 그러니 대중이 외면할 수밖에. <원스>처럼 진정성 하나로 무장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 팬들은 살아 있다.
- (나) <원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가난한 음악인의 삶과 아픔, 사랑과 이별을 담담하게 그린다. 거기엔 눈부신 액션이나 극적인 설정이나 이야기도 없다. 단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두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는 영화적 진실이다. 둘에게 노래는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물론 그들이 짓고 부른 노래가 <라비앙로즈>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것보다 훌륭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음악적 진정성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삶의 진실을 되살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다) 지난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50.4%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관객 수도 전년도보다 25%나 줄었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 내리막 추세는 올해로도 이어져 첫 주 한국영화 점유율은 30%대에 그쳤다. 10일 개봉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덕택에 40%대를 회복했다. 대중음악 시장의 내리막 추세는 이보다 더 심하다. 가장 많이 팔린 가요 음반 판매량은 2000년 196만 장에 이르렀으나, 2005년 35만 7천여 장으로 급락하더니 다시 지난해엔 19만여 장으로 꺾였다. 음반 제작사와 유통사는 절반 이상이 폐점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다. 가수들이 코미디나 개그 프로에 더 열중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 (라)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 영화 <원스>의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 제작비 1억 4천만 원, 촬영 기간 불과 2주, 그리고, 주연 역시 연기 경험이 전무한 남녀 두 가수인 영화다. 이런 ‘초라한’ 영화가 관객 21만 명을 끌 줄은 누구도 몰랐다. 독립영화로선 대박이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개봉관은 고작 두 곳이었으나 개봉 후 80일쯤엔 140곳으로 늘었다. 또 영화 음악을 담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오에스티)은 지난해 3만 6천여 장이 팔려, 오에스티 음반에선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국외 팝 전체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오에스티 분야 2위인 <라비앙로즈> 음반 판매량은 3,900장이었다.

- ① (가) - (나) - (라) - (가)      ② (나) - (라) - (다) - (가)  
③ (다) - (라) - (나) - (가)      ④ (나) - (가) - (다) - (라)

문 10. 밑줄 친 단어의 풀이로 옳은 것은?

올해는 고래실논에도 호미모를 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하였다.

- ①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② 넓따랗고 평평한 논  
③ 높다란 언덕 위에 있는 논  
④ 빗물을 이용하여 경작하는 논

문 11. 밑줄 친 ㉠ ~ ㉤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 회사들이 ㉠ 채산성을 이유로 그동안 벌여 놓았던 각종 서비스를 ㉡ 축소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등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은행들은 ㉢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해지고 있다.

카드사들 또한 새해 들어 연회비와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일제히 ㉣ 인상함에 따라, 카드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최고 50% 인상했다. 한국씨티카드는 이달부터 카드론 수수료율을 2% 올렸고, 삼성카드는 지난해 백화점 가전매장 등에서 실시했던 2~3개월 무이자 ㉤ 할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롯데카드는 일부 카드의 포인트 적립 서비스에 ‘3개월간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사용’이란 실적 제한을 새로 만들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조달 금리가 2% 포인트 이상 올라 땅 파서 장사하지 않는 이상 각종 ㉥ 혜택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 해명했다. 그러나 회사원 노재웅(35) 씨는 “회사 ㉧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고객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당초 약속을 완전히 뒤엎다니 사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 |       |       |      |
|-------|-------|------|
| ㉠ 採算性 | ㉡ 縮小  | ㉢ 貸出 |
| ㉣ 引上  | ㉤ 割部  | ㉥ 惠澤 |
| ㉦ 解明  | ㉧ 受益性 |      |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2. 밑줄 친 한자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장래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 ① 宣暢 : 널리 알려 펴      ② 擺脫 : 털고 벗어남  
③ 芟除 : 오그라져 쇠함      ④ 廉義 : 체모와 도리

문 13. 다음 글에서 홍보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등글등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모셔 오너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한을 마소 엇그저까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날부터 기민(饑民)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 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② 돈은 사람들의 운명에 지대한 권한을 갖는다.  
③ 돈은 가치 있게 써야 한다.  
④ 돈으로 자신을 팔지하던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칠 수 있다.

